

생명·자비·나눔·보시를 노래하다

제1회 부산전국불교합창제 20여 불교합창단 참가해

전법2010 전진! 도심포교 전진대법회

부산시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2010년 1월 4일부터 도심포교 활성화에 기여한 선지식을 초창기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전법 2010, 도심포교 전진대법회'를 봉행한다.

도심포교 활성화와 부산지역 불자들의 신심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5개월간 계속된다. 1월 4일 법륜 스님(경토회 지도법사)을 시작으로 2월 2일 혜종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3월 16일 혜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장), 4월 6일 목종 스님(대광명사 주지), 5월 4일 고산 스님(쌍계사 조실, 조계종 법계위원장) 등이 차례로 법석에 올라 감포법문을 펼친다.

한편, 법회 일정 외에도 하루 찾집, 교계지도자 소장품 경매전, 일일 생명나눔가게 등이 운영된다. (051) 853-8539

박지원 기자

'나는 영화매니아'

실버시네마엑스포

부산 수영구노인복지관(관장 범산)은 영화와 UCC를 주제로 한 제2회 실버시네마엑스포를 개최했다.

12월 17~18일 수영구복지관 전관에서 마련된 이번 영화 축제에는 UCC경연대회, 개관 1주년 기념식 및 2일간 10시간 연속으로 추억의 명작과 최신 영화를 상영하는 '나는 영화매니아'와 '다함께 영화봐요'가 진행됐다. 또, 레드카펫 베스트 드레서, 추억의 일일찾집, UCC 제작체험관, 영화박물관, 추억의 영화포스터 전시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돼 흥겨운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관장 범산 스님은 "부산에서는 최초로 노인복지관 분야에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만큼 보다 전문사회복지 서비스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51) 759-6070

박지원 기자

2000여 개 사암, 200만 사부대중을 자랑하는 불교도시 부산에 전국의 불교합창단원이 한자리에 모여 '생명·자비·나눔·보시'를 노래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제1회 부산전국불교합창제가 12월 10일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윤순) 주최로 부산광역시(시장 허남식),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정예), 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회장 설동근) 후원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국 20여 불교합창단이 참가해 8개 연합합창단을 이뤄 아름다운 화합의 하모니를 뽐냈다.

부산 영주암(주지 범산)·황정사(주지 황정)·금련사(주지 각범) 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 '금강'은 <사랑하는 마음이어>와 <아리랑 연곡>, 부산 관음사(주지 지현)·미륵사(주지 정각)·진각종(부산교구 청장 해평) 유가합창단의 '화엄'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와 <방앗간에 죽장졌고>,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 금강암(정만), 내원정사(주지 정련)의



12월 10일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 전국불교합창제 모습.

'천수'는 <거위의 꿈>과 <마을>, 부산 공덕원(주지 효선)·부산불교육대학(이사장 강선태)·정각사의 '아미타'는 <갈>과 <이 날개를 달고서> 등 찬불가 뿐 아니라 대중가요, 국내·외 가곡,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합창곡을 선보였다.

지역 연합인 전북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송영호) 대전·충남불교연합합창단(단장 임응옥) 대구불교연합합창단(회장 김미자)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등도 차례로 무대에 올

라 <부타의 노래>와 <나무아미타불>, <어느 암자의 사계절> 등의 주옥같은 우리 찬불가를 노래했다.

또,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영화음악 메들리, 부다중창단의 <라데츠카행진곡>, 뮤지컬 '남태평양', 도신과 색즉시공, 소프라노 정서영의 <사라의 찬사> <풍년타령> 등 특별공연이 결집하여 한층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했다.

끝으로 모든 합창단 참가자가 함께 <관세음보살님>을 합창하며 처

음으로 개최된 전국불교합창제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김윤순 회장(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은 대회사에서 "찬불가가 울려 퍼지는 법당과 도량이 온 중생의 귀의처가 되어 병든 자에게는 완치를,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고통 받는 자에게는 즐거움을 전해준다는 일념으로 음성공양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여 스님(부산시불교연합회장, 범어사 주지)은 법어를 통해 "관음의 현신이며 가릉빈가의 공양이 이곳 법석을 통해 사해시방(四海十方)에 점진히 두드렷물 불성"이라며 "스님들의 주야조식 염불 드림도 찬불이며 합창단에서 음성을 고르며 공상각치우를 노래함도 넓은 의미의 찬불이고 범음법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합창제가 찬불가의 보급과 불교음악의 대중화의 계기가 되어 부처님의 노래로 아침을 열고 저녁을 마감하는 음성의 예술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051)867-0601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김치는 사랑을 싣고~

범어사, 자비의 김장 담그기 행사



12월 15일 범어사 '자비의 김장나눔' 행사에서 정여 스님(오른쪽)이 김장을 담고 있다.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12월 15일 설법전 앞 마당에서 주지 정여 스님과 스님 40여 명 및 신도 등 100여 명이 모여 '자비의 김장나눔' 행사를 위해 김장을 담갔다.

주지 정여 스님도 이날만큼은 앞치마를 두른 채 두 팔을 걷어 올리고, 이른 아침부터 머리 절여 둔 배추를 작업대로 옮겨와 양념을 치대어 각 세대에 나눠줄 반찬통에 담아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다.

이날 범어사 스님들과 신도들

이 직접 담근 7000포기의 김장김치는 금정구 관내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웃 500여 세대에 전해졌다.

정여 스님은 "절에서 담그는 김치는 찌갈이나 마늘 등이 전혀 들어가지 않지만, 과일과 고구마 등으로 맛을 내 특유의 맛깔스러움이 있다"며 "여기에 우리 스님들과 신도들의 자비로운 손맛이 더해져, 이 김치 드시면서 울겨울도 따뜻하게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인생 잘 사는 길이 바로 봉사"

용호복지관, 첫 자원봉사수기집 '따뜻한 동행'

"내 몸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어르신과 함께 하기로 나 자신과 굳게 다짐했다. (중략) 나도 곧 늙게 될 것이다. 인생을 잘 사는 길이 바로 봉사라 확신한다." (김정순·73·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봉사자)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도 하나 없이 홀로 쓸쓸히 맞으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극락에 왕생하시라고 수없이 빌고 또 빌었다." (양원진·63·도시락배달 봉사자)

복지사회구원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땀방울을 흘리는 자원봉사자들의

진솔한 눈물과 감동이 한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자원봉사수기집 <따뜻한 동행>을 발간하고, 12월 18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2009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출판기념회를 마련했다. 책에는 부산 지역 곳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묵묵히 활동하는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300여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직접 보고 느낀 감동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냈다.

지난 2008년 8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오프라인 80여 편의 봉사활동 수기와 활동사진 등 총 360여 페이지로 구성되었다.

이춘성 관장은 "바쁘고 힘든 일상생활을 할애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승고한 뜻을 널리 알려 자원봉사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발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이어 "이번 <따뜻한 동행> 수기집의 발간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우리 사회에 더욱 넓게 확산돼 또 다른 봉사자들의 간접경험을 통해 향후 봉사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물질적 풍요와 나눔과 봉사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한 삶일까. 물질적 풍요는 개인과 가족의 행복에 그치지만, 나눔과 봉사는 주변사람들은 물론 사회전체로 행복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자원봉사수기집 <따뜻한 동행>은 현대인에게 삶의 본질을 깨우쳐 주고, 참다운 자신의 삶으로의 길을 열어줄 인생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051) 628-6737 박지원 기자

"꽃처럼 고운 천진불을 위하여"

동련 제48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개최

동련 제48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12월 12~13일 양일간 경주 사조마을 콘도미니엄에서 개최됐다.

'해처럼 밝고 꽃처럼 고운 천진불을 위하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마련된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지도자 250여 명이 참가해 어린이포교의 열정과 역량을 내놨다.

특히 첫날 오후 3시 강당에서 열린 입제식에는 동련 신임 이사장 심산 스님을 맞이하는 이·취임식이 함께 마련됐다.

지현 전임 이사장은 이임사에서 "소임을 맡은 동안 물질양면으로 도와주신 감사한 마음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고, 스스로 부족했던 것을 알기에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인사했다.



동련 선임이사장 심산 스님(왼쪽)에게 전임이사장 지현 스님이 기를 전달하며 인사하는 모습.

이에 심산 이사장은 "그간 어린이포교에 열정을 가졌던 분들의 실천과 그 위성을 바탕으로 내년이면 동련이 15주년을 맞는다. 어린이포교라는 끊임없는 원력으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사회가 동련으로 거듭나기까지 지현 스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며 "전임 이사장님이 뒤아놓은 토대 위

에 동련이 한국불교의 근본이 될 천진불을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제식에 이어 본격적으로 이어진 연수회는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 대한불교교사대학장)의 '어린이에게 부처님의 향기를', 김영일 차장(조계종 포교원)의 '어린이포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오산 대각사 어린이회 지도교사단의 '헬로, 달마스쿨!', 이소정 교사(동국대부속유치원)의 '명상놀이', 사공정규 교수(동국대 의과대학 및 불교상담학과)의 '어린이 정신건강',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의 '부처님의 노래' 등 5가지 주제의 어린이포교에 관한 강의가 이어졌다. (051) 864-4569 박지원 기자

※ 카타로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덤핑으로 판매하는 타사 제품과 종이 질(두께), 스프링 제본 등 견고함을 비교하여 주세요!

역시 이름값하는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해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범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귀격 특대호-국전 (91.9x61.5cm) | 한지-국3절 (90.5x63cm) | 대-국6절 (90x31cm) | 4-4x6 12절 (25.5x26.5cm) | 탁상용 (21.5x15cm) | 미니 차량용 (8.8x9.5cm) | 메모 수첩용 (9.5x13.5cm)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TEL. (02)723-4306 FAX. (02)738-8682 www.gamro.net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